

데스크시각

박치경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마음 고생 심한 국가 원수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날만 새면 격정거리를 하나씩 내놓는 북한에 대응하라, 국민 살림살이 꺾게 하고 어수선해진 정국수습 공력에 대통령께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으시죠? 게다가 국민까지 서로 편이 갈려 심려가 더욱 크시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최근 만났던 한 정치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 전 대통령 빈소에서 통곡했는지 아느냐? 대부분 서민인 문상객들은 본인이나 자신의 고달픈 세상에 마음이 상해 있던 차에 노 전 대통령의 애끓는 사연을 듣고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더군요.

우선 국민의 마음을 풀어줘야

취임 1년 반도 안돼 직전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겪은 대

통령께서 대단히 마음이 무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 달을 맞아 그의 유지를 되새겨 봅니다. 그가 남긴 글귀 가운데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구

대통령에게 띄우는 편지

절이 여운으로 다가옵니다. 남의 탓 말고 그동안 서로 불편한 관계였으면 화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회는 별로 새삼스러울 것 없는 '전투 모드'에 다시 들어갔고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각종의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은 아직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답답해 하는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전후 대통령께서 밝힌 '근원적 처방'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하면서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개헌에

따른 정치체제와 행정체제 개편, 인적새신 카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복잡다단한 국정운영과 상대성이 큰 외교에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국민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주시라는 당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에 비던 '정·포·대'(정치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말을 결코 듣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넘어 '감동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지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군요. 우선 충청출신들로 채워진 최근의 후임 검찰총장과 국제청장 내정 인사에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매우 실망해 하는 표정입니다. 두 조직의 개혁과 쇄신에 방점을 둔 인사는 평가도 있었지만 호남출신의 유능한 인사 대상자들이 즐비했음에도 모두 비켜가는 바람에 지역민들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전환용 개각은 고려

치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번엔 충청을 배려했다면, 다음 인사에서는 호남출신들이 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너무 순진할까요?

근원적 처방은 '감동의 정치'

현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전의 참여정부에 비해 지방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를 들어 최근 정부가 내년 도입을 결정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현행 분배방식이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벌써 자치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해 중요하듯 지방이 잘 사는 것도 전체 국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난에 다른 곳도 잇따른 실정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광주·전남의 지역현안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푸념이 많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구석이 어려운지를 찾아서 어루만지고 해법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정말 맛있는 정치가 시작됐구나"라는 탄성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의 박수를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정치부장 unipark@

시설

2010 F1 '빨간 불'... 대책은 없는가

내년 10월 영암에서 개최될 F1(포뮬러) 대회가 주요 경기팀의 불참 선언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엔 대회 참가를 보이콧한 팀들이 실질적으로 F1 대회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암대회의 성공 개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F1대회 참가 8개 팀의 연합체인 FOTA가 최근 내년 F1대회에 불참하고 별도 시리즈를 만들어 독자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FOTA는 페라리, 도요타 등 F1대회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팀 연합체다. 따라서 이들 팀의 불참이 현실화될 경우 영암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대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FOTA의 불참선언이 F1대회를 총괄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과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FIA가 내년부터 신생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각 팀의 예산을 연간 약 830억원 이하로 줄이는 규정을 신설하자 FOTA가 F1대회의 인기하락 등을 우려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남도와 코리아 F1대회 운영법인인 코보가 이들의 갈등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단체가 원만한 합의를 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10 F1대회는 지원법의 국회 통과 지연 등 처음부터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팀의 불참선언이라는 또 다른 압초를 맞아 대회 자체 불투명하게 돼 안타깝다. 하지만 F1대회는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J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최대 지역현안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전남도와 코보는 FOTA와 FIA 간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내년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관계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의 F1지원법 통과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소비·소득세 보완책 반드시 선행돼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내년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별 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의 숙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소비세에 대한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간 소득 편차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이며, 생산·고용 부가가치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회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미래 광주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데움이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특히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는 배분 방식을 지방교부세 의존이 높은 전남도에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별 소비지출비중에 따라 배분할 경우 전남 1천570억원, 서울 1조1천72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점쳐진다. 반면 내국세의 20%인 지방교부세율을 낮춰 국제감소분을 보존하게 되면 3조6천48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전남은 1조 가까운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일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은 줄게 된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광주·전남은 수도권과 재정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無等鼓

수년 전 중국 항저우를 방문했을 때 '동파육(東坡肉)'을 먹어본 적이 있다. 달착지근한 맛이 솔직한 우리네 돼지고기보다 다 나를 게 없었다는 기억이 여전하다.

복숭아시의 관료이자 시인이었던 동파소시(蘇軾)는 정적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배했다. 시인답게 술을 사랑한 동파는 유배지에서 쉬운 돼지고기를 안주로 맛있게 먹기 위해 요리법을 개발했고, 그것이 바로 동파육이다.

요리법이라고 해서 유별난 것도 아니다. 겹겹이 붙어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한번 삶거나 튀겨 여분의 지방을 제거한 뒤 간장과 술·설탕 등으로 조리낸 요리다. 이후 동파육은 항주요리의 명물이 된데 이어 '따라하기' 천재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부타노카쿠니'로 변신했다.

지금은 우리나라 중국집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간장으로 조리 중국인들에게는 여름에도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인기있는 보양식으로 통한다. 이른 부타노카쿠니는 요즘, 우리

입맛에는 아무래도 냉면이 최고다. 쫄깃한 메밀 면발과 매콤한 양념에다 무채 김치·삼겹살·달걀 등을 얹고 얼음 동동 띄운 국물까지 곁들여 먹으면 신선이 따로 없다.

냉면은 그 뿌리를 중국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조선조부터 겨울철 별미로 먹어온 어엿한 우리 음식이다. 6·25 전쟁 이후 메밀로 만든 평양식, 전분으로 만든 함흥식이 북을 일으키며 여름철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영양은 말 할 것도 없다. 주재료인 메밀은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동의보감은 전한다. 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다스 루틴(LutIn)과 쌀에 부족한 리신(Lysine)이라는 아미노산도 다량 함유한 것으로 과학적인 검증은 통해 밝혀진지 오래다. 당장이라도 정치·경제 등 제대로 풀리는 일 하나 없는 우리 사회에 시원한 냉면 한사발을 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



은펜클럽

류동훈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IMF 이후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계약직이 대폭 증가하였다. 회사들이 계약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회사 상황에 따라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이유로 긴장을 주어서 컨트롤하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전공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학생은 공무원 수험서를 공부하고 있다. 행정학이나 관련 학과가 아닌 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로 수년의 시

발적인 동기부여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넘쳐 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은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보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용조정이 난무한 직장에서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밀어내기 위해 각종 비방과 견제도 갈등이 많은 직장이다.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을 추구하면 직원들이 긴장을 풀어 버리고, 나태해지며,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속아내야 직장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용조정을 하기 전에 우

기고

박재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 대학생들의 화합과 협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이며, 다양한 사상, 이념, 피부색과 종교, 문화, 경제적 차이를 뛰어 넘어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세계 젊은이들의 순수한 스포츠 축제이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행사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인권도시 광주에서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같은 민족인 북한과 통합선수단 참

남보는 "철단산업 문화수도 광주, 빛의 도시 광주, 민주인권도시 광주"라는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광주는 약 6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교통·통신·고급 숙박시설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증대될 것이며, 생산·고용 부가가치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회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미래 광주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데움이 좋은 기회가 될 것

하계U대회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가가 성사된다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감동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광주는 지난해 2013 하계U대회 유치 실패 아픔을 겪은 후 시련을 딛고 재도전에 성공하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결정한 "Challenge for the Best"라는 슬로건 아래 U대회 유치기원 2015보 걷기대회, 리본 달기, 릴레이행사 등을 개최하여 모든 시민과 학생들이 한마음을 한 뜻이 되어 대회유치를 위해 한결같은,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유치성공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난날 확정한 하계U대회 광주개최라는

이다. 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우선돼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선수단과 타 시도 관광객이 12일간을 편히 지내며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징하여야 한다. 따뜻하게 손님을 맞는 자세에서부터 교통 및 안전 대책 등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준비했던 경기장 시설, 경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광주의 대표선수가 되어 6년의 준비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정부, 광주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하나 되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여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체육회 경기운영부장>

애완동물 교통사고 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얼마 전 광주 시내로 접어드는 순간 눈앞에 말쑥이 어떤 물체가 도로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보였다. 무심코 지나치려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했다. 그런데 그건 차에 치어 죽은 개의 사체였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리려고 막 힘을 주려는 순간 두 눈은 집근 감고 자동차 바퀴로 그 위를 밟고 지나쳤다. 그때 만약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면 내차는 바로 옆에서 달려오던 덩크트럭에 박살이 났을지도 몰랐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이처럼 가장 불쾌한 것 중의 하나가 도로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죽은 사체가 도로 위에 방치돼 있는 것

이다. 차량에 치어 나뒹구는 동물 사체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려는 운전자들로 인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둑 고양이든 주인이 없는 관계로 도로로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의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집에서 관리만 잘 해 준다면 개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건너다니는 차에 치어 도로 위의 흉물로 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요즘은 부쩍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기영·광주시 서구 세하동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제작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